

2016년도1학기 경제통계학연구-김재영

설 문 내 용	결과	전체
1. 이 과목 또는 강좌를 수강하데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 필수과목이기에	40(78%)	57(100%)
(2) 듣고 싶은 다른 과목이 선수과목이어서	5(10%)	
(3) 지식함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9(18%)	
(4)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0(0%)	
(5) 학점을 잘 준다고 해서	0(0%)	
(6) 명강의로 소문나서	3(6%)	
(7) 재수강	0(0%)	
2. 출석을 어느 정도 하였습니까?		
(1) 1/4 미만	1(2%)	51(100%)
(2) 1/4 이상 2/4 미만	2(4%)	
(3) 2/4 이상 3/4 미만	1(2%)	
(4) 3/4 이상 그러나 몇 차례 결석	6(12%)	
(5) 거의 100%(거의 매번 출석)	41(80%)	
3.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얼마나 공부하였습니까? ((1)-(3)은 수업 출석률이 낮은 경우)		
(1) 거의 공부하지 않았다	0(0%)	51(100%)
(2) 시험 때만 하였다.	5(10%)	
(3) 과제와 시험이 있을 때만 하였다.	8(16%)	
(4) 대체로 수업을 열심히 들었지만 예습복습은 거의 하지 않았다.	24(47%)	
(5) 수업을 열심히 듣고 예습복습을 비교적 철저히 하였다.	14(27%)	
4. 강의의 내용 및 진행은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바와 같았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51(100%)
(2) 그렇지 않았다.	2(4%)	
(3) 그저 그러했다.	10(20%)	
(4) 대체로 그러했다.	22(43%)	
(5) 매우 그러했다.	17(33%)	
5. 사용된 교재, 참고문헌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2(4%)	51(100%)
(2) 그렇지 않았다.	4(8%)	
(3) 그저 그러했다.	12(24%)	
(4) 대체로 그러했다.	21(41%)	
(5) 매우 그러했다.	12(24%)	
6. 과제 및 시험은 강의 내용의 이해와 심화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3(6%)	51(100%)
(2) 그렇지 않았다.	6(12%)	
(3) 그저 그러했다.	7(14%)	
(4) 대체로 그러했다.	19(37%)	
(5) 매우 그러했다.	16(31%)	
7. 강의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3(6%)	51(100%)

(2) 그렇지 않았다.	10(20%)	
(3) 그저 그러했다.	9(18%)	
(4) 대체로 그러했다.	19(37%)	
(5) 매우 그러했다.	10(20%)	
8. 교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질문, 면담, 게시판, e-mail)를 제공받았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2(4%)	51(100%)
(2) 그렇지 않았다.	9(18%)	
(3) 그저 그러했다.	15(29%)	
(4) 대체로 그러했다.	19(37%)	
(5) 매우 그러했다.	6(12%)	
9. 과제의 분량은 적절했습니까?		
(1) 너무 적었다	0(0%)	51(100%)
(2) 적은 편이었다.	2(4%)	
(3) 적절했다.	8(16%)	
(4) 많지만 할말했다.	22(43%)	
(5) 너무 많았다.	19(37%)	
10. 강의 내용의 난이도와 본인의 이해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너무 쉬웠다.	0(0%)	51(100%)
(2) 쉬운 편이었다.	3(6%)	
(3) 적절했다.	3(6%)	
(4) 어렵지만 할만했다.	23(45%)	
(5) 너무 어려웠다.	22(43%)	
11. 교수님의 강의 속도와 강의내용의 분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매우 느슨했다.	5(10%)	51(100%)
(2) 느슨한 편이었다.	4(8%)	
(3) 적절했다.	9(18%)	
(4) 딱딱하지만 할만했다.	17(33%)	
(5) 너무 딱딱했다.	16(31%)	
12. 이 과목의 수강을 다른 친구 및 후배들에게 추천하겠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8(16%)	51(100%)
(2) 그렇지 않았다.	7(14%)	
(3) 잘 모르겠다.	20(39%)	
(4) 대체로 그러했다.	13(25%)	
(5) 매우 그러했다.	3(6%)	
13. 실습 또는 연습시간(TA session)은 유용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3(6%)	51(100%)
(2) 그렇지 않았다.	5(10%)	
(3) 잘 모르겠다.	6(12%)	
(4) 대체로 그러했다.	18(35%)	
(5) 매우 그러했다.	19(37%)	
14. 담당교수는 유능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3(6%)	51(100%)
(2) 그렇지 않았다.	3(6%)	
(3) 잘 모르겠다.	8(16%)	
(4) 대체로 그러했다.	18(35%)	

(5) 매우 그러했다.	19(37%)	
전체		

기타 건의사항

- 시험지가 시험 시작 시간에 맞춰 완성되어 있었으면 합니다.
- 1. The class is in korean 2. TA sessions are in korean 3. Study groups are in labs, cannot participate 4. The stress of being the black sheep makes it worse than studying alone 5. It seems a useful course for the students. I think it's great to have TA sessions. I hope they learned a lot.
- 교수님!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 과제, 시험 난이도 너무 다르다. 난이도 조절 좀 잘해주세요
- 시험 정시 시작만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
- 수업 주제가 병렬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선수과목으로 해석학적인 내용을 모르면, Measure Theory 부분을 따라가는 데,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립니다. 참고해야할 교재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 수업 내용과 과제, 시험 괴리가 너무 심하여 공부 동기부여를 저해합니다.
- 너무 어렵습니다.
- 수업시간에 다른 소리하다 시간 없다고 수업내용 TA로 떠넘김. 배우는 양이 100이면, 교수님 수업에서 10, TA수업에서 30, 혼자 60 정도의 느낌. 시험에도 나오고 정작 중요한건 대충 가르침.
- 수업시간에 핸드폰 전원을 차단해두셨으면 좋겠다.
- 기말고사 날짜를 학기초에 정해주세요.
- TA수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제 시간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OLS가 이렇게 나올 줄이야.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혼잣말 하는 것 같습니다.